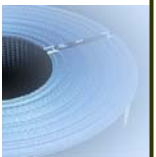


2006. 9.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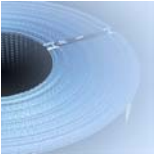
POSRI CEO REPORT

자원 민족주의 재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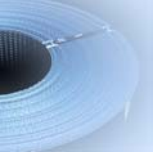
지역연구센터 윤현순
경영연구센터 한기호

Executive Summary



〈자원 민족주의 재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〉

- 최근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, 러시아도 석유자원과 오일 달러를 배경으로 대외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음
 - 중국의 자원수요 급증으로 원료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자원 민족주의 재 확산의 근본 원인이며, 1천억 달러 이상의 투기 자금 유입은 주요 자원의 수급불안정을 가속화시키고 있음
 - 남미 좌파정권은 반미정서 확산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자원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고, 러시아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자본축적으로 자원개발에서 외국자본 참여를 배제하기 시작함
- 자원 민족주의의 재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은 다음과 같음
 - ① 美-中-日 강대국간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은 상대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에게 필요자원의 안정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음
 - ② 철강산업 관련 8대 주요 자원의 매장량 분포는 상위 5개국에 평균 71.5%가 편중되어 있어, 공급부족이 심화될 경우에는 원료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음
 - ③ 철강자원 보유국들은 정부차원에서 자원 수출을 억제하거나 보유자원을 무역 및 투자유치와 연계하는 등, 철강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
 - ④ 원료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철강사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커짐에 따라 세계 철강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'원료확보=생존' 등식으로 변화하고 있음
 - ⑤ 주요 철강사들의 원료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
- 국내기업들은 해외 개발수입 비중 증대, 원료 구매선 다변화, 자원보유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 유지, 국내 종합상사와 공동으로 해외자원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



목 차

I. 검토배경	1
II.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	2
III. 자원 민족주의 재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	4
1. 강대국간 자원확보 경쟁으로 안정조달의 불확실성 증대	4
2. 매장량 편중 및 공급부족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	6
3. 자원보유국의 철강원료 무기화 움직임 확산 우려	7
4. 세계 철강산업 경영 패러다임 ‘원료확보=생존’으로 변화	8
5. 주요 철강사, 원료확보에 총력 경주	10
IV. 결 론	11

I. 검토배경

- 중국의 원재료 블랙홀화로 국제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,
- 일시적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단한 사례처럼, 자원보유국들이 자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
- 최근에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원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확산 중임
- '70년대 자원 민족주의로 촉발된 1,2차 Oil Shock시 세계 경제 및 철강산업이 급속히 침체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,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 파급 영향은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
 - 이는 과거에는 원유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철강 및 비철자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임
 - 더욱이 철강산업에서도 자원보유국들이 정부차원에서 수출을 억제하거나 보유자원을 무역 및 투자유치와 연계하는 등, 철강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
- 따라서 국내 철강사로서는 장기적으로 소요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향후 회사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될 것임

II.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

□ 최근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지난 2년여에 걸친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, 자원수요가 급증하여 원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임

○ 원유수급 문제로 혼이 난 각국 정부와 기업이 원자재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게 됨

※ 2006년 5월 10일 중국 정부가 구리, 철, 우라늄 등 10대 광물자원을 2010년까지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하자 런던시장의 해당 원자재 가격은 급등한 바 있음

○ 원유 등 에너지와 원자재가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투기자금이 들어와 각종 원자재를 싹쓸이 하고 있으며, 이는 수급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

○ 국제 투기자금은 현재 1천억~1.2천억 달러로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, '99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

□ 남미의 좌파정권이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하였고, 러시아 역시 석유자원과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대외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음

○ 남미의 좌파정권은 기존 우파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실패를 주장하고, 反美정서 확산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자원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음

- 러시아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상당부분 자본이 축적돼 외국자본 없이 자원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외국자본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

< 최근 자원 민족주의의 주요 사례 >

국 가	내 용
베네수엘라	-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자원 국유화 선언함 - 외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32개 유전개발사업의 지분 60%를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에 넘기라고 발표함
볼리비아	-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,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발표함 - 바로 다음날, 볼리비아 정부는 광물 및 산림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- 다국적 기업들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볼리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(YPFB)에 넘기든지, 아니면 6개월 이내에 떠나라는 엄포에 이른 조치임
에콰도르	- 미국의 석유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과 석유생산에 관한 계약을 파기, 5월 16일 압류작업을 개시하였음 -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현재 추진 중인 양국의 FTA 교섭을 중단함
러시아	- 우크라이나가 2005년 오렌지 혁명에 성공한 후, 친 서방 노선을 펴자 러시아는 올 2분기부터 천연가스 가격을 현행 1000m³당 50달러에서 230달러로 인상한다고 통보하고,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하자 가스공급을 중단함 -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이 영국 에너지 회사 인수를 추진하다가 반발을 사자 에너지 수출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리겠다고 위협함 - 극동 파이프라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여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유럽 견제수단으로 활용함

Ⅲ. 자원 민족주의 재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

1. 강대국간 자원확보경쟁으로 안정조달의 불확실성 증대

□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은 정부와 재계가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고 있음

○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%에 불과하지만, 에너지 소비량은 1/4에 달하며, 1인당 소비량은 EU 및 일본의 두 배에 해당되므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중시됨

○ 부시 정부는 에너지 안전보장을 외교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, 동맹관계 구축과 무기판매를 우선시 했던 군사·외교 전략을 최근 유전보호와 해상교역로 방어에 초점을 둠

□ 세계 제2의 석유소비국인 중국은 해외진출 및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

○ 중국의 석유수입 의존도는 2002년 38%에서 2020년엔 77.6%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며,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해외 석유생산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로 확대할 계획임

○ 지난해 중남미 공략에 집중한 후, 올해는 중동과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 '전략적 동반자' 관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

□ 일본은 석유회사 및 종합상사가 앞장서 해외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고, 정부는 제도개선과 자금지원을 통해 신규 에너지원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

-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, 시베리아 송유관 노선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, 중·일간의 에너지 분쟁은 배타적인 민족주의까지 작용해 긴장강도가 높아지고 있음
- 일본의 전략은 석유 의존도를 낮춰 가면서 일단 러시아산 에너지를 선점하는 것이며, 최근 마련한 ‘신국가 에너지 전략’에 따르면 현재 50%인 석유 의존도를 40%로 끌어내릴 계획임

< 美-中-日 3국의 자원확보 경쟁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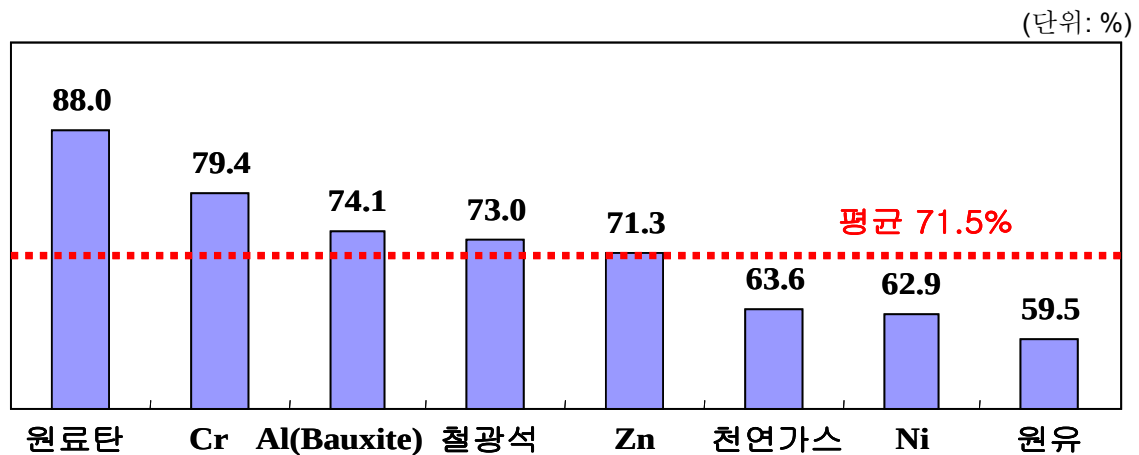
국 가	내 용
미국	▪ 강한 군사력과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워 북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를 군사기지 벨트로 묶어감 - 이면에는 바쿠-트빌리시-제이한(BTC) 라인을 포함한 송유관과 군사협력을 교환하는 이해관계 존재
중국	▪ 올해 초 나이지리아 심해유전 지분 45%를 23억 달러에 계약했으며, 카스피해, 남미, 아프리카 등 16개국에서 유전지분 및 석유 개발권을 확보함 ▪ 아시아에 유전이 많은 미국의 석유업체 유노칼을 18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 美 정부 불허로 무산됨
일본	▪ 현재 수입원유 중 15%인 자주개발 비중을 2030년까지 40%로 확대할 계획임 ▪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세계 구리의 38%를 생산하는 칠레의 주요광산 지분을 절반 가까이 차지함 ▪ 2005년 비철금속 광산 확보에 21.6억 달러 투자 (중국 73억 달러 투자)

- 美-中-日 강대국간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은 상대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에게 필요자원의 안정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

2. 매장량 편중 및 공급부족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

- 철강산업 관련 8대 주요 자원의 매장량 분포는 상위 5개국에 평균 71.5%가 편중되어 있음

< 2005년 주요자원의 상위 5개국 매장량 비중 >



주: 1.원료탄은 해상물동량 공급량 기준임

2.Cr은 3개국 생산량 기준임

자료: USGS, BP Plc

- 대부분의 분석기관은 중국의 철강생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수급 타이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, 최근 들어 과거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음

- 2006년 1~7월 중국 조강생산량은 236.04백만 톤으로 전년동기비 18.9% 증가하였음

- 2006년 전체로는 CISA가 전년비 10% 증가한 384.5백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나, 3/4분기까지 철강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억 톤 이상이 될 전망이다

- 이에 따라 철광석 가격은 2007년에도 5% 인상되고, 원료탄의 경우에는 당초 13% 하락에서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

< 철광석 및 원료탄 전망가격 조정 내용 >

(단위: 철광석 U\$/dltu, 원료탄 U\$/톤)

		FY2005	FY2006	전년비	FY2007	전년비
철광석	Old('05.10)	61.72	73.45	19.0%	73.45	0.0%
	New('06. 3)				77.12	5.0%
원료탄	Old('05.10)	125	115	-8%	100	-13.0%
	New('06. 3)				115	-

주: 철광석 가격은 호주-일본고로사간 연간 계약가격 기준(분광, FOB)

자료: Morgan Stanley(2006.3)

- 수급상의 논리로 볼 때 철광석 가격은 신규설비가 가동되는 2008년부터 하락하고 원료탄도 2008년에 다시 하락할 전망이지만, 과거 대비 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자원 민족주의 재 확산에 따라 공급부족이 심화될 경우 다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
- 특히 철강의 주요원료인 원료탄, 철광석 등의 편중비중이 73~88%로 높아,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우려되고 있음

3. 자원보유국의 철강원료 무기화 움직임 확산 우려

- 철강원료 보유국들은 자국 철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원료의 수출을 억제하거나, 심한 경우에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도 고려하고 있음
- 또한 원료를 수출하는 대가로 자국 내 대규모 철강 프로젝트에 공동투자를 요청하거나,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수입과 연계하고 있음

- 브라질 CVRD의 경우, 원료 생산능력 증강 프로젝트에만 지분을 투자하려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음

< 자원보유국의 철강원료 무기화 사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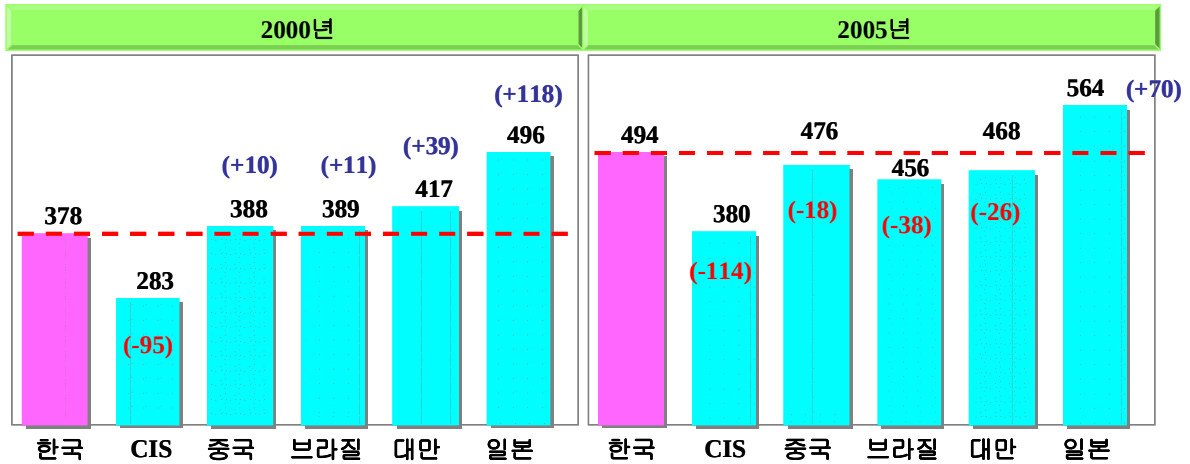
국가	주요 사례
중국	▪ 철광석, 선철, 고철 등 철강원재료를 가공무역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함('05.5) -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경우, 부가세 환급, 관세변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음 ▪ 최근에는 철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철광석, 고철 등의 자원 수출규제를 강화함
브라질	▪ 세계 최대 철광석업체인 브라질의 CVRD는 철광석 능력 증가 프로젝트에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배제할 방침임 - 철광석 공급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, 철광석 공급을 미끼로 브라질 내 제철소 합작 프로젝트에 외국 철강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
인도	▪ 자국 철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영기업 NMDC의 고품위 철광석 수출을 중단 예정임('06.3) - 韓, 日 등과 장기공급계약 갱신 시, 철광석 수출 물량을 우선적으로 감축할 계획임 ▪ 철광석 수출을 원료탄 수입과 해외투자 유치 등과 연계시킴 ▪ 인도 철강사들은 정부에 자국 내 철광석 광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 중임
뉴칼레도니아	▪ Goro Nickel 프로젝트, 현지 주민 등 반대파의 반발로 '06.4 건설공사가 중단됨 - 지분: Inco 69%, 스미토모광산 11%, 미츠이물산 10% - Nickel 6만 톤, 코발트 5천 톤, 당초 '07년 가을 생산 예정

4. 세계 철강산업 경영 패러다임 '원료확보=생존' 으로 변화

- 과거와는 달리 원료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철강사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커지고 있음

- 자원보유국 철강사들은 철강원료의 저가 조달로 원가경쟁력이 자원소비국 철강사 대비 급속히 향상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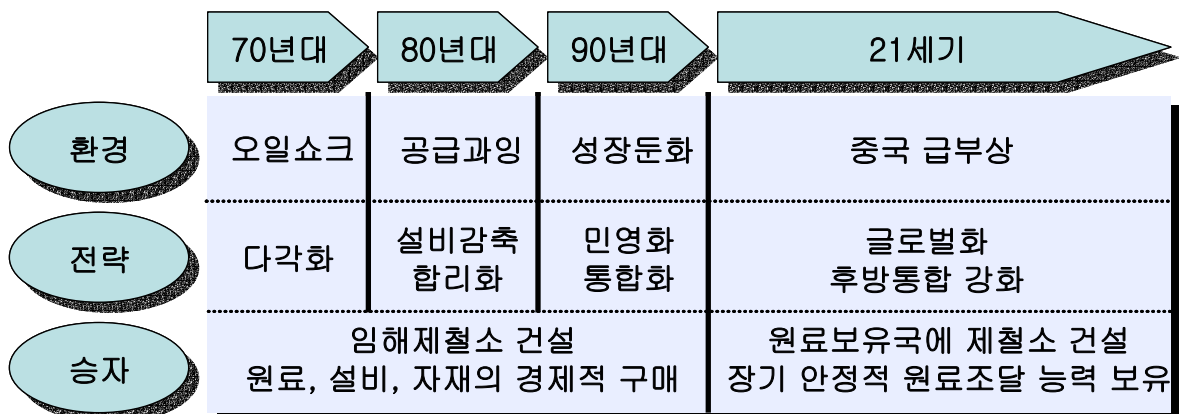
< WSD의 냉연 총원가 비교, US\$/톤 >



주: ()는 한국 대비 총원가 차이

- ❑ 철강원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철강산업에서도 자원의 무기화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, 철강사들은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으로써 후방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
- ❑ 따라서 향후에는 과거와 달리 원료보유국에 제철소를 건설함으로써 Captive Mine을 보유한 철강사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원료조달 능력을 보유한 철강사만이 생존하게 될 것임

< 세계 철강산업 경영의 패러다임 변화 >



5. 주요 철강사, 원료확보에 총력 경주

□ 개발수입 비중을 높이기 위한 철강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, Mittal Steel은 글로벌 차원의 후방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- 동사의 후방통합 전략은 원료광산을 보유한 철강사를 우선적으로 M&A하고, 이미 인수한 철강사 소재 국가에서 광산능력을 증강하며, 아프리카/중남미 지역에서 신규광산을 개발하는 것임
- 이를 통하여 2,800만 톤의 철광산 능력 증강을 추진하여 2010년 철광석 자급도를 82%까지 높일 계획임
- 원료탄도 2004년 자급도가 52%로 타 철강사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으로 추가적으로 생산능력을 600만 톤 증강할 계획임

* Mittal Steel은 2004년 기준 철광석 매장량 50억 톤, 원료탄 매장량 15억 톤을 보유하고 있음

□ 신일철과 JFE 양사는 Big 3사와 철광산 공동개발로 개발수입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으며, 호주 및 캐나다에서 대형공급사의 원료탄 광산 지분을 인수하고 있음

- 철광석의 경우, 기존 J/V 외에 호주 Hope Downs Project 등 신규광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연간조달량을 증대시킬 계획임
- 원료탄의 경우, 2005년부터 미국 AMCI가 소유하고 있는 호주의 Carborough Downs, Glennies Creek 광산과 캐나다 Elkview 광산의 지분을 2.8-7.0% 인수 한 바 있음

- 또한 고로5사가 공동으로 러시아연방 Sakha 공화국의 Elga 탄전(원료탄 연간 1,000만 톤 포함)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 중임
- 궁극적으로 일본 고로사들은 해외에서 개발한 철광석과 원료탄으로 수요의 50%를 충당할 방침임

□ 상해보강은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합작투자를 확대하고 있음

- 철광석은 CVRD, Rio Tinto와 원료탄은 河南永煤, 山西焦炭, 山西焦煤 등과 국내외 광산을 대상으로 합작 및 제휴를 강화하고 있음
- 이를 통하여 철광석의 경우 2010년에는 지분투자 및 장기계약을 통한 조달비중을 84%까지 높일 방침임

IV. 결 론

□ 자원 민족주의 재 확산에 대비하여 국내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1. 해외 개발수입 비중 확대

- 회사 성장전략의 기본 원칙을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로 정하고, 소요 철강원료의 해외 개발수입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임

2. 원료 구매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 강화

- 자원 민족주의는 특정국가의 원자재 가격 및 공급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의미하고, 구매선 다변화를 통해 원료구매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

3. 자원보유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 유지

- 주요 자원 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 등에서 자사의 홍보활동에 주력하고, 현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됨

4. 국내 종합상사와 공동으로 해외자원 개발

- 전 세계로 뻗어있는 종합상사의 네트워크를 통해, 개발 정보부터 자원의 판매, 또 다른 연관사업의 결합까지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음

윤현순 (☎ 02-3457-8081, e-mail: hsyoon@posri.re.kr)

한기호 (☎ 02-3457-8078, e-mail: hankiho@posri.re.kr)